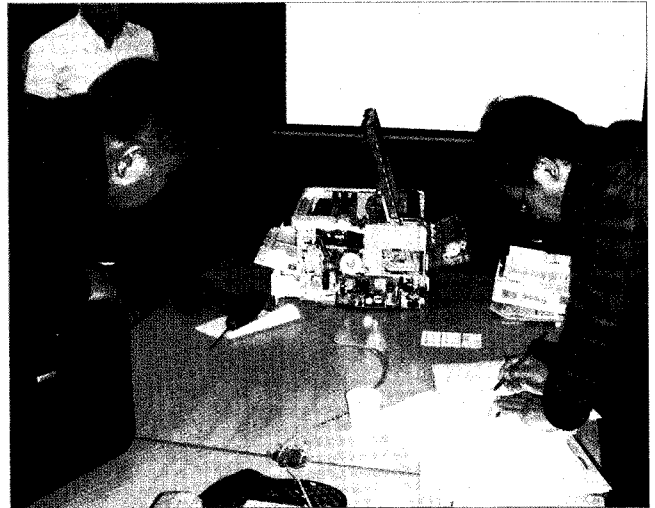


조달청납품업체 합동조사 결과 대부분의 업체 법규준수



정부조달 전기용품 중 화재·감전 등의 위험 및 장애 발생 우려가 있는 전기용품에 대해 안전성 확인 점검 및 안전인증(자율안전확인신고)에 대한 인식제고 필요성에 따라 정부조달 전기용품 합동점검을 실시하고 있다.

조달계약 업체 및 수요가 많은 정보사무기기 및 조명기기를 선정하여 자율안전확인대상 전기용품 중 제조·유통업체 프린터 등 11개 품목 77업체 대하여 한국제품안전협회, 기술표준원, 조달청 품질관리단 등 3개 기관이 합동으로 점검을 실시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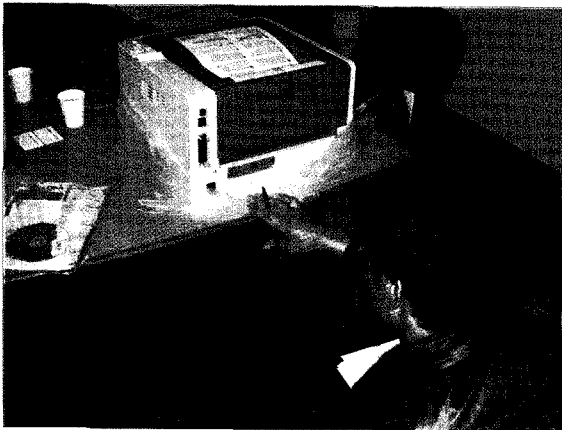
점검방법은 해당업체를 현장 방문하여 해당제품의 자율안전확인 신고증명서 보유 여부 및 신고시와 동일한 제품을 생산하는지를 확인하는 것으로, 법적 표시사항에 대한 적합성을 확인하고, 품목당 한개의 시료를 채취하여 인증기관에 시험을 의뢰하였다.

이러한 조사과정을 거쳐 점검결과에 따라 불법·불량 제조·유통업체에 대해서는 관련기관에 고발 및 행정조치가 이루어지며, 해당제품의 정부조달에 관한 사항은 조달청이 조치하여 불법·불량제품 유통을 차단하게 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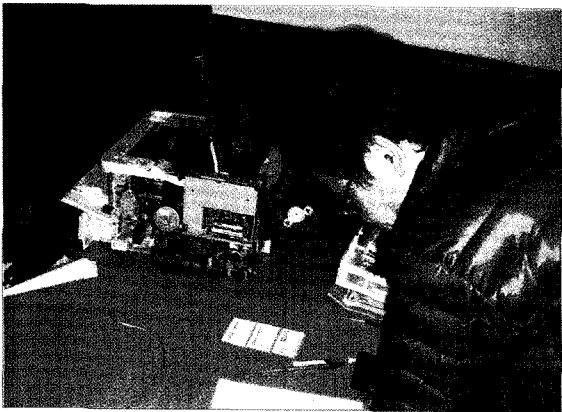
이번 합동점검을 실시한 업체는 서울특별시 서초구에 소재한 프린터를 조달청에 납품하는 O社였다.

해당업체는 일본에 본사를 두고 프린터 및 복사기를 제조하는 업체로서, 합동조사원은 해당 관리자를 만나 프린터 등 11개 품목 정부조달 자율안전확인대상 전기용품에 대한 점검 사실을 설명하고 조사를 실시하였다.



합동조사원은 해당제품인 프린터의 자율안전확인 표시 유무를 확인하고 제대로 된 제품이 유통되는지 면밀하게 확인한바, 해당제품은 표시방법 등에 대해 법적사항을 준수하고 있었다.

다음으로는 안전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부품 등에 대해 신고시와 동일성을 여부를 판단하기 위해 제품을 분해하여 중요부품을 확인하였다. 자율안전확인 신고증명서의 기술문서를 참고하여 확인하는 절차가 이루어졌으며, 조사결과 특별히 제품의 변경이나 누락부분이 없는 것으로 파악됐다.



마지막으로 안전성실험 등을 위해 시료를 채취하여 합동점검은 마무리단계에 접어들었으며, 이와 함께 조사원은 해당업체의 관리자에게 “정부조달 전기용품뿐만 아니라 전기용품안전 관리법 대상 품목에 대해 안전인증의 준수는 소비자의 안전과 직결되는 중요한 요소이니 만큼 앞으로도 철저한 관리를 해야 한다.”며, 안전관리에 대한 인식을 고취시키고, 법적인 표시사항을 잘 준수할 것을 당부하였다.

또한, 협회 관계자는 “이번 합동점검 결과에 따라 불법·불량제품을 제조·유통한 업체에 대해서 지속적으로 사후관리를 할 예정이며, 앞으로는 관련기관과 긴밀한 협조를 통하여 전 조달품목에 대해 조사를 확대할 계획”이라고 밝히며, 해당 업체들은 해당 내용을 숙지하고 제품의 안전성 확보를 위해 노력해 줄 것을 당부했다. ♪

